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49호 / 9월 3일

중국은 ‘세계의 공장’이 될 수 있는가?

1. 개요

- 중국의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중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중국이 ‘세계의 공장’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.
 - 실제로 중국은 섬유, 가전, 이륜차 등 다수의 제조업 생산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, 갈수록 그 품목이 늘어나고 있음.
- 그러나 최근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제조업 수준은 ‘세계의 공장’과는 거리가 멀고, 세계 공장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단한 노력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음.
 - 최근 국가통계국 치우샤우화(邱曉華) 국장은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적고, 기술 및 부가가치수준이 낮아 향후 세계공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.
 - 특히, 판강(樊綱)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의 육성은 도외시하고, 첨단산업, 서비스업 등 겉보기에 화려한 산업의 육성에 맞추어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세계공장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- ☐ 아래 내용은 판강 소장의 논문을 중심으로 ▲세계공장화의 필요성, ▲중국경제의 구조와 제조업, ▲정부정책과 현실간의 괴리 등을 살펴본 것임.

2. 중국의 ‘세계공장화’에 대한 판강 소장의 견해¹⁾

가. ‘세계공장화’의 필요성

- ☐ 중국이 향후 10~20년 내로 ‘세계공장화’에 성공한다면 중국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화와 현대화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음.

-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 비농업분야에서 충분히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수억 명에 달하는 농촌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고, 도시화를 실현하여 ▲3농(농업, 농촌, 농민) 문제, ▲도농 격차, ▲취업부족, ▲지역간 격차, ▲빈부 격차 등 중국이 현재 직면해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음.

o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바로 중국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함.

나. 제조업에 대한 중국내 잘못된 인식

- ☐ 이러한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‘과학기술대국’이라는 구호하에 전통적인 제조업을 부가가치가 낮다고 외면하고, 첨단산업에 특화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함.

-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인식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.

- 첫째, ‘과학기술대국’과 ‘세계공장’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임. 또한 현 노동력구조로 볼 때 첨단산업에 특화하는 것은 취업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.

- 둘째, 전통적인 제조업을 소외시 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

1) 본 글은 판강 소장의 “世界工場：中國應該之努力”을 요약, 정리한 것임(中國宏觀經濟分析, 2002년 8월호 게재).

것은 모순임. 현재 과학기술이 발전된 선진국은 모두 세계공장의 단계를 거쳤으며, 다만 현재는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임.

- 셋째, 실제 제품에 체화되지 않은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가 없음. 중국은 앞으로 우주선과 같은 첨단제품도 생산해야 되지만, 신발이나 양말과 같은 제품에 응용되는 기술도 계속 개발해야 함.

□ 또한 일부에서는 서비스 즉, 유통분야에서 혁신을 이루면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.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중국의 현실을 너무 간과한 것임.

- 첫째, 선진국의 경우 유통기업이 제조업을 장악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나, 이는 이들 기업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,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였기 때문임.

○ 중국기업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학습비용이 필요할 것임.

- 둘째, 유통 서비스와 제조업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바, 양자의 발전은 동시 추진이 충분히 가능함.

- 셋째, 극단적인 예로 첨단산업과 유통서비스에 각각 1억 명의 노동력이 취업한다고 해도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, 중국의 나머지 5~6억 명의 노동력은 갈 곳이 없음.

다.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인식의 오류

□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‘산업고도화’라는 용어는 부가가치가 낮은 저급한 산업은 도태시키고, 첨단산업이나 서비스산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의미임.

- 이러한 표현은 일부 선진국이나 중국의 특정 대도시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렇지 못함.

-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각 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에는

이론의 여지가 없지만, 중국은 현재 경쟁력을 가진 노동밀집형, 저기술형 산업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됨.

- 중국은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의 과잉인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.
- 따라서 일부 지역이나 기업에서는 ‘산업구조 고도화’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,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할 정책은 아님.
-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아닌 ‘산업구조 확대’, 즉 기존의 산업은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서 취약한 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정책을 사용해야 함.
- 산업구조의 확대는 경제규모와 취업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임.

라. 중국의 정책과제

- 결국, 중국경제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산업구조를 확대하고,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는가임.
- 지난 20여 년간의 체제개혁을 통해 중국의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지만, 제약요인도 여전히 많음.
- 세계공장은 단순히 중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개도국의 공통적인 목표인바, 중국은 현재의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.
- 현재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대국인 것은 확실하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도 반드시 제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.
- 세계공장화가 중국경제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초기단계의 국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인식이 필요함.

3. 평가 및 시사점

- 판강 소장의 논문은 중국의 발전전략과 관련, 아래와 같은 몇가지 중요한

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.

- 첫째, 중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추월전략(즉,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중시)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의 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둘째, 중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육성임. 과학기술은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, 그 자체가 중국경제를 견인할 수는 없음.
- 셋째, 현재와 같이 ‘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산업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는 오히려 ‘세계공장화’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음.(***)